



The pattern of use by gender and age of the discourse markers ‘a’, ‘eo’, and ‘eum’

Youngsook Song¹ · Jisu Shim¹ · Jaehyuk Oh^{2,*}

¹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²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This paper quantitatively calculated the speech frequency of the discourse markers ‘a’, ‘eo’, and ‘eum’ and the speech duration of these discourse markers using the Seoul Corpus, a spontaneous speech corpus. The sound durations were confirmed with Praat, the Seoul Corpus was analyzed with Emeditor, and the results were presented by statistical analysis with R. Based on the corpus analysis,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a particular factor is preferred by speakers of particular categories.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the corpus is that the sound durations of female speakers were longer than those of men when using the ‘eum’ discourse marker in a final position. In age-related variables, teenagers uttered ‘a’ more than ‘eo’ in an initial position when compared to people in their 40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ha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discourse markers ‘a’, ‘eo’, and ‘eum’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continue the discussion, more precis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considering the context. In addition, similarities can be found in “e” and “ma” in Japanese(Watanabe & Ishi, 2000) and “uh”, “um” in English(Gries, 2013). afterwards, a study to identify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can be predicted by using the cross-linguistic analysis of the discourse.

Keywords: discourse marker, gender, age, Seoul corpus

1. 서론

‘아’, ‘어’, ‘음’은 상대의 말을 듣고 공감을 했거나, 이해를 했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품사로 보면 감탄사에 해당하나, 형태론 혹은 품사론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 혹은 그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화용론이나, 언어 자료의 연구 대상을 ‘문어’가 아닌 ‘구어’에 관심을 두는 구

어 연구자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받는 언어 표현이다. 화용론이나, 구어 연구자들은 이를 ‘담화 표지’ 혹은 ‘간투사’라고 부른다. 이 연구에서는 화자의 말에 대한 이해, 공감, 의문 등의 포괄적 의미를 지닌 담화 표지 ‘아’, ‘어’, ‘음’이 성별과 연령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성별과 연령별 사용 빈도, 발화 내 출현 위치, 음성학적 길이 등에 대해서 그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아, 어, 음’에 대해서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

* with5jea@konkuk.ac.kr, Corresponding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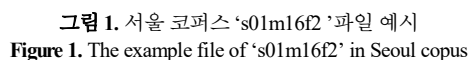
Received 31 October 2020; Revised 12 December 2020; Accepted 14 December 2020

© Copyright 2020 Korean Society of Speech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이처럼 ‘아’, ‘어’, ‘음’의 의미와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단어 자체의 개념적 의미를 정의하거나, 용법적 의미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비슷한 의미를 지닌 ‘네/예’, ‘응’과도 비교해 보면 그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아’, ‘어’, ‘음’을 특정한 의미를 지닌 ‘감탄사’로 접근하기보다 ‘담화’의 차원에서 청자가 ‘반응’을 보일 때 쓰는 ‘담화 표지’로 전제하고, 이 담화 표지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담화 표지 자체의 의미나 기능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과 연령’이라는 외적인 요인에 따라 담화 표지의 실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아, 어, 음’의 사용 빈도, 발화 내 출현 위치, 음길이에 대한 정보는 Praat(ver.6.1.31)에서 사용되는 그림 1과 같은 TextGrid 형식의 파일을 shell 명령어를 사용하여 그림 2와 같은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여 추출하였다.



아	어
intervals [209]:↓ xmin = 155.09311963600723 ↓ xmax = 155.4268000505421 ↓ text = "아" ↓	intervals [758]:↓ xmin = 545.2924782264354 ↓ xmax = 545.47204347869 ↓ text = "어" ↓
intervals [210]:↓ xmin = 155.4268000505421 ↓ xmax = 155.9668000505421 ↓ text = "거기여" ↓	intervals [759]:↓ xmin = 545.47204347869 ↓ xmax = 545.9295779447189 ↓ text = "일만" ↓
intervals [211]:↓ xmin = 155.9668000505421 ↓ xmax = 156.36125483342448 ↓ text = "저" ↓	intervals [760]:↓ xmin = 545.9295779447189 ↓ xmax = 546.2313821270369 ↓ text = "<VOCNOISE>" ↓
intervals [212]:↓ xmin = 156.36125483342448 ↓ xmax = 156.74569165447432 ↓ text = "<VOCNOISE>" ↓	intervals [761]:↓ xmin = 546.2313821270369 ↓ xmax = 546.7611856104819 ↓ text = "어" ↓
intervals [213]:↓ xmin = 156.74569165447432 ↓ xmax = 157.22271205073488 ↓ text = "초아글" ↓	intervals [762]:↓ xmin = 546.7611856104819 ↓ xmax = 547.5214143684548 ↓ text = "<VOCNOISE>" ↓
intervals [214]:↓ xmin = 157.22271205073488 ↓ xmax = 157.713066542728 ↓ text = "아래" ↓	intervals [763]:↓ xmin = 547.5214143684548 ↓ xmax = 548.9606928640643 ↓ text = "<LAUGH-어>" ↓
intervals [215]:↓ xmin = 157.713066542728 ↓ xmax = 158.403066542728 ↓ text = "분식찌미" ↓	intervals [764]:↓ xmin = 548.9606928640643 ↓ xmax = 549.084473543641 ↓

그림 2. ‘아’와 ‘어’의 텍스트 파일 검색 결과 예
Figure 2. Text file search results for ‘a’ and ‘eo’

이때, 중복 추출되지 않도록 한글 철자 전사의 발화 층위(7개의 층위 중에서 제7열)만을 추출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 어, 음’의 정보를 추출한 후에는 분석 대상을 맞게 추출했는지 전후 문장과 음성 파일을 모두 확인하였다. 검색에는 코퍼스 분석 도구인 Emeditor(ver.17.6.1)를 사용하였고 통계 분석에는 R(ver.3.4.4)을 사용하였다.

발화 내 출현 위치를 추출할 때에는 조각문이 많은 구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끊김이 존재하면 하나의 발화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서울코퍼스는 발화의 끊김을 IVER(간격), NOISE(소음), SIL(휴지 혹은 묵음), VOCNOISE(유성 소음) 등의 태그로 구분하고 있다.

‘아, 어, 음’의 음길이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아, 어, 음’ 각각의 위치 정보인 ‘XMAX’(최대 시간)에서 ‘XMIN’(최소 시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이때, <LAUGH-아>와 같이 웃음과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거나 ‘아아, 어어, 음음’과 같이 중복으로 발화되어서 한 음질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정리된 데이터 파일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데이터 추출 예시
Table 1. The example of data file

Number	Feature	Position	Person	Gender	Age	Duration (S)
1	a	Begin	s01	m	10	0.315
2	a	Begin	s01	m	10	0.150
3	a	Middle	s01	m	10	0.141
4	a	Middle	s01	m	10	0.334
5	a	Middle	s01	m	10	0.079
⋮	⋮	⋮	⋮	⋮	⋮	⋮
4,096	eum	Single	s40	f	40	0.211

3. 연구 결과

3.1. 데이터 요약

담화 표지의 전체 출현 빈도는 ‘아(a)’가 1,553회, ‘어(eo)’가 1,516회, ‘음(eum)’이 1,027회였다. ‘아, 어, 음’의 빈도 및 음길이 정보는 표 2와 같다.

표 2. ‘아, 어, 음’의 출현 위치별 빈도 및 음길이
Table 2. The pronunciation frequency and the length of ‘a’, ‘eo’, ‘eum’

구분	아	어	음	합/평균
빈도 (회)	단독	294	529	657
	시작	983	813	311
	중간	201	115	25
	종결	75	59	34
	합	1,553 (37.9%)	1,516 (37.0%)	1,027 (25.1%)
음길이 (ms)	단독	400	484	502
	시작	199	289	372
	중간	201	196	273
	종결	210	250	372
	평균	238	348	453
	표준편차	181	244	272
	최댓값	1,571	1,596	1,926
	중위수	182	285	389
	최솟값	20	19	53

발화 내 출현 위치 빈도는 담화 표지만 단독으로 출현한 단독 위치(이하 ‘단독 위치’)가 1,480회, 발화 시작 위치(이하 ‘시작 위치’)가 2,107회, 발화 중간 위치(이하 ‘중간 위치’)가 341회, 발화 종결 위치(이하 ‘종결 위치’)가 168회로, ‘시작 위치>단독 위치>중간 위치>종결 위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와 ‘어’는 발화 시작 위치에서 고빈도로 발화된 반면 ‘음’은 단독으로 발화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평균 음길이는 각각 ‘아’가 238 ms, ‘어’가 348 ms, ‘음’이 453 ms로, ‘음>어>아’ 순으로 나타났다. 발화 내 출현 위치에 따른 음길이는 단독 위치가 475 ms, 시작 위치가 259 ms, 중간 위치가 204 ms, 종결 위치가 257 ms로, ‘단독 위치>시작 위치>종결 위치>중간 위치’ 순으로, 평균적으로 단독 위치에서 가장 긴 음길이를 보였다. 관측값 중 가장 긴 음길이를 보인 것은 ‘음’으로 1,926 ms이었고, 가장 짧은 길이는 ‘어’로 19 ms이었다.

3.2. 성별 차이

표 3은 성별에 따라 나타난 ‘아’, ‘어’, ‘음’의 출현 빈도 및 음길 이와 관련한 정보이다.

표 3. 성별에 따른 ‘아, 어, 음’의 출현 빈도 및 음길이
Table 3. The pronunciation frequency and length by gender

구분			아	어	음	합/평균
남성	빈도 (회)	단독	125	259	246	630
		시작	553	444	189	1,186
		중간	111	44	8	163
		종결	40	31	15	86
		합	829 (40.1)	778 (37.7)	458 (22.2)	2,065 (100%)
	음길이 (ms)	단독	386	482	515	476
		시작	195	296	356	258
		중간	190	189	277	194
		종결	170	214	238	197
		평균	222	348	436	317
		표준편차	170	242	265	237
		최댓값	1,413	1,596	1,694	1,694
		중위수	168	286	365	251
		최솟값	30	19	52	19
여성	빈도 (회)	단독	169	270	411	850
		시작	430	369	122	921
		중간	90	71	17	178
		종결	35	28	19	82
		합	724 (35.7)	738 (36.3)	569 (28.0)	2,031 (100%)
	음길이 (ms)	단독	410	486	494	475
		시작	204	281	397	260
		중간	216	201	271	215
		종결	257	291	478	319
		평균	256	348	466	348
		표준편차	192	246	277	252
		최댓값	1,571	1,574	1,926	1,926
		중위수	199	281	409	274
		최솟값	20	29	70	20

성별에 따른 세 담화 표지의 전체 출현 빈도는 남성이 2,065회, 여성이 2,031회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출현 위치에 따라서도 이 세 담화 표지의 출현 빈도 합이 ‘시작 위치>단독 위치>중간 위치>종결 위치’의 순서로 남녀 모두가 같았다. 그러나 ‘아’, ‘어’, ‘음’ 각 담화 표지별 출현 위치에 따른 빈도와 음길 이에서는 특징적인 차이가 몇 가지 관찰되었다.

우선 표 3의 ‘빈도’의 ‘합’ 행에서 보듯이, ‘아’, ‘어’, ‘음’ 담화 표지별 출현 빈도에서 남녀의 차이를 찾을 수 있다. 남성은 세 담화 표지 중 ‘아(40.1%)>어(37.7%)>음(22.2%)’ 순의 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그 차이도 여성에 비해서는 비교적 뚜렷하였으나, 여성은 ‘어(35.6%)>아(36.3%)>음(28.0%)’ 순의 출현 빈도를 보였고, 세 담화 표지의 사용 빈도의 차이가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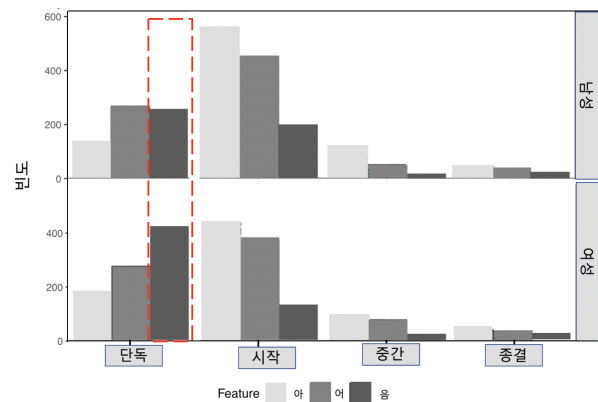


그림 3. 성별 ‘아, 어, 음’의 출현 빈도
Figure 3. The pronunciation frequency of ‘a’, ‘eo’, ‘eum’ by gender

두 번째는 담화 표지별로 출현 위치에 따른 사용 빈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단독 위치에서의 담화 표지별 사용 빈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시작 위치, 중간 위치, 종결 위치에서는 남녀 모두 ‘아>어>음’의 같은 출현 빈도 순서를 보였으나, 단독 위치에서는 남성의 경우 ‘어>음>아’, 여성의 경우 ‘음>어>아’의 순서를 보였다. 남녀 모두 단독 위치에서 ‘아’의 출현 빈도가 낮았던 것은 동일하나, ‘어’와 ‘음’의 경우 남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데 비해, 여성에게는 ‘음’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끝으로 성별에 따른 종결 위치에서의 음길이 차이를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담화 표지의 평균 음길이는 여성이 348 ms, 남성이 317 ms로 여성의 음길이가 더 길었다. 그러나 종결 위치에서 음길이는 남녀의 차이가 122 ms로 매우 컸다(남: 197 ms, 여: 319 ms). 단독 위치, 시작 위치, 중간 위치의 차이는 각각 1 ms, 2 ms, 21 ms인 것에 비하면 종결 위치에서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종결 위치의 음길이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결 위치에서 ‘음’의 음길이 차이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길이를 종결 위치로만 국한해서 보면, ‘아’는 남성 170 ms, 여성 257 ms, ‘어’는 남성 214 ms, 여성 291 ms, ‘음’은 남성 238 ms, 여성 478 ms로 각각의 차이가 ‘아’가 87 ms, ‘어’가 77 ms, ‘음’이 240 ms로 ‘음’이 ‘아’나 ‘어’에 비해 여성에게서 더 길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종결 위치에서 담화 표지 음길이 차이는 ‘음’에서 기인하는 차이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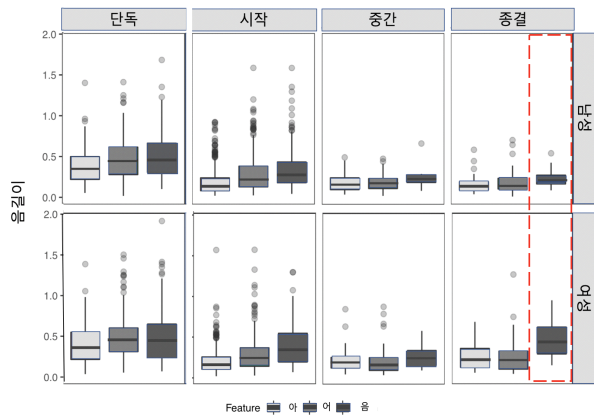


그림 4. 성별 ‘아, 어, 음’의 음 길이
Figure 4. The length of ‘a’, ‘eo’, ‘eum’ by gender

요컨대,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음’은 단독 위치에서 출현 빈도의 차이를 보이며, 종결 위치에서 음길이의 차이를 보인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단독 위치에서 여성의 ‘음’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종결 위치에서 여성의 ‘음’의 음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다.

3.3. 연령별 차이

표 4는 각 연령별로 담화 표지 ‘아’, ‘어’, ‘음’의 출현 빈도와 음길이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연령별 담화 표지 전체 출현 빈도는 10대 1,011회, 20대 859회, 30대 1,111회, 40대 1,115회로, ‘40대>30대>10대>20대’ 순서를 보였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에서 전반적으로 출현 빈도가 낮았으나, 이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그림 5는 연령별로 발화 위치에 따른 담화 표지의 출현 빈도 차이를 보이기 위한 그림이다. 연령별로는 단독 위치와 시작 위치에서 보이는 세 담화 표지의 사용 빈도에서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우선 그림 5의 시작 위치에서 10대의 ‘아’와 40대의 ‘어’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10대에서는 ‘아’의 출현 빈도가 294회로 ‘어’의 156회, ‘음’의 90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에 반해, 40대에서는 ‘어’의 출현 빈도가 290회로 ‘아’의 235회, ‘음’의 67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즉, 발화 시작 위치에서 10대는 ‘아’를 많이 사용하고, 40대는 ‘어’를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독 위치를 보면, 30대의 ‘음’의 두드러진 사용 빈도를 볼 수 있다. 단독 위치에서 ‘음’은 30대가 246회로, 10대 123회, 20대 147회, 40대 141회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30대의 ‘음’의 사용 빈도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다른 연령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표 4. 연령별 ‘아, 어, 음’의 출현 빈도 및 음길이
Table 4. The pronunciation frequency and length by age

구분			아	어	음	합/평균
10대	빈도 (회)	단독	106	144	123	373
		시작	294	156	90	540
		중간	50	15	7	72
		종결	14	8	4	26
		합	464 (45.9)	323 (31.9)	224 (22.2)	1,011 (100%)
	음길이 (ms)	단독	371	552	579	501
		시작	203	403	338	314
		중간	189	319	308	272
		종결	261	158	528	316
		평균	241	460	473	362
		중위수	184	431	424	292
		표준편차	175	275	266	257
		최댓값	943	1,596	1,194	1,596
		최솟값	28	40	71	28
20대	빈도 (회)	단독	67	85	147	299
		시작	215	176	44	435
		중간	48	33	5	86
		종결	19	15	5	39
		합	349 (40.6)	309 (36.0)	201 (23.4)	859 (100%)
	음길이 (ms)	단독	397	451	572	473
		시작	154	237	413	268
		중간	180	152	195	176
		종결	175	219	561	318
		평균	205	286	527	310
		중위수	148	232	502	243
		표준편차	174	207	258	243
		최댓값	1,066	1,265	1,424	1,424
		최솟값	20	19	52	19
30대	빈도 (회)	단독	68	126	246	440
		시작	239	191	110	540
		중간	59	19	9	87
		종결	18	13	13	44
		합	384 (34.6)	349 (31.4)	378 (34.0)	1,111 (100%)
	음길이 (ms)	단독	458	519	453	477
		시작	209	268	388	288
		중간	206	160	264	210
		종결	245	178	353	259
		평균	254	350	426	343
		중위수	190	299	305	256
		표준편차	192	243	292	256
		최댓값	1,413	1,514	1,694	1,694
		최솟값	27	32	63	27
40대	빈도 (회)	단독	53	174	141	368
		시작	235	290	67	592
		중간	44	48	4	96
		종결	24	23	12	59
		합	356 (31.9)	535 (48.0)	224 (20.1)	1,115 (100%)
	음길이 (ms)	단독	386	418	448	417
		시작	225	272	367	288
		중간	233	203	333	256
		종결	183	343	262	263
		평균	247	316	412	313
		중위수	208	251	363	253
		표준편차	181	223	238	221
		최댓값	1,571	1,422	1,926	1,926
		최솟값	30	28	7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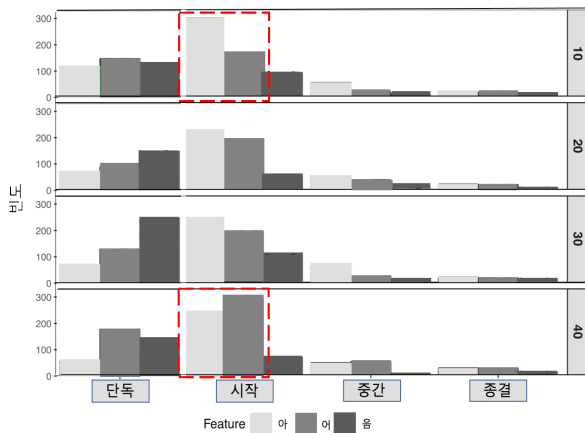


그림 5. 연령별 ‘아, 어, 음’의 출현 빈도
Figure 5. The pronunciation frequency of ‘a’, ‘eo’, ‘eum’ by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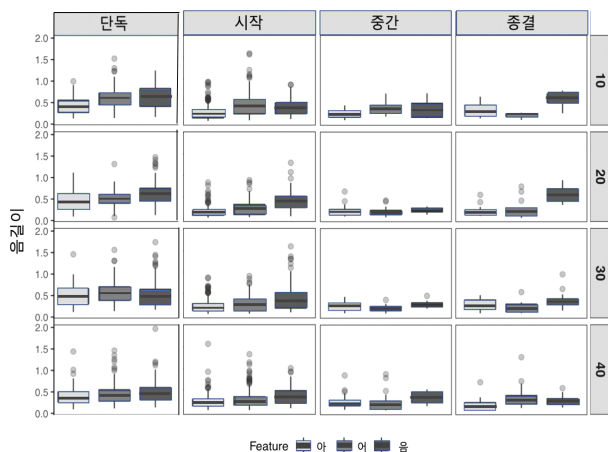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별 ‘아, 어, 음’의 음 길이
Figure 6. The length of ‘a’, ‘eo’, ‘eum’ by age

그림 6은 연령별로 발화 내 위치별 담화 표지 ‘아’, ‘어’, ‘음’의 음길이를 상자 도표(box plot)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그림 6에서 보듯이, 연령에 따른 평균 음길이는 10대 362 ms, 20대 310 ms, 30대 343 ms, 40대 313 ms로, 연령에 따른 평균 음길이의 차이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담화 표지별로 보아도 모든 연령에서 음길이는 ‘음>어>아’ 순서로 동일하다. 발화 내 출현 위치별로 보아도 연령별 차이 혹은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모든 연령에서 ‘단독 위치’의 음길이가 가장 길고, 발화 ‘중간 위치’에서의 음길이가 가장 짧다. 다만, 담화 표지별로 발화 위치별에 따라 나누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단독 위치에서 ‘음’의 평균 음길이가 10대 579 ms, 20대 572 ms, 30대 453 ms, 40대 448 ms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음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연령에 따라서는 발화 시작 위치에서 10대의 ‘아’와 40대의 ‘어’의 출현 빈도의 차이, 단독 위치에서 30대 ‘음’의 두드러진 사용 빈도를 찾을 수 있다. 음길이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려우나, 발화 단독 위치에서 ‘음’만 연령이 낮을수록 음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논의

담화 표지 ‘아, 어, 음’은 성과 연령이 달라도 비슷한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으나, 두 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음’의 차이가, 연령별로는 10대의 ‘아’와 40대의 ‘어’의 차이가 비교적 두드러졌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성별과 연령별 ‘아’, ‘어’, ‘음’의 사용 양상을 논하도록 한다.

4.1.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음’의 특징적 사용

3장에서 보았듯이, 발화 단독 위치에서는 성별에 따라 ‘음’의 사용 비율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7은 발화 단독 위치로만 정하여 성별에 따른 ‘아’, ‘어’, ‘음’의 출현 비율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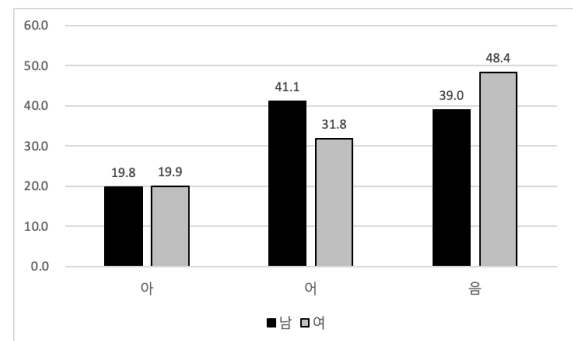


그림 7. 발화 단독 위치에서 성별에 따른 담화 표지 출현 비율
Figure 7. Ratio of discourse markers according to gender at the sole location of utterance

그림 7에서 보듯이 발화 단독 위치만 보면(‘아’는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으니 논외로 한다), 남성에게서는 ‘어’ 41.1%, ‘음’ 39.0%로 약 2.1%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여성에게서는 ‘어’ 31.8%, ‘음’ 48.4%로 약 16.6%의 차이가 보인다. 즉, 발화 단독 위치에서 여성이 ‘음’을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은 여성의 발화 단독 위치에서 나타난 ‘음’의 한 예시이다. 이는 그림 8과 같이 구체적인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여성의 발화 단독 위치에서 나타나는 ‘음’의 예

어 쪼끔 힘들어요 특히 클래식 곡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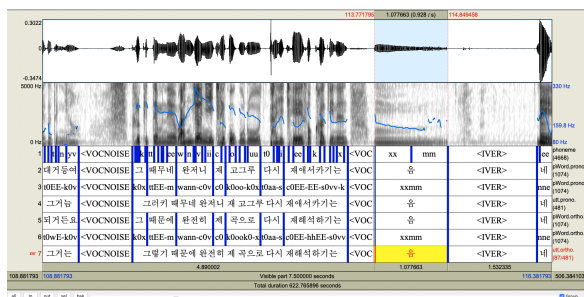
왜냐면은 작곡가가 어느 정도 체시를 다 해 봤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제 곡으로 다시 재해석하기는

<VOC> 음(1,077 ms). <IVER>

그림 8을 보면, 화자가 ‘음’을 길게 끌면서 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해석하기는’ 뒤에 ‘어렵다’ 등의 단정적 술어를 생략하고 휴지를 가진 후 ‘음’을 1초 이상 길게 발화하고 있다. 피험자의 발화 지연이 길어지자 진행자가 발화에 개입(IVER 부분)하고 나서야 다음 발화를 이어간다.



이 연구는 담화 표지 ‘음’의 기능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발화 위치에서 두드러지는 여성의 ‘음’의 사용 양상에 대한 화용론적인 해석은 어렵다. 그러나 (3)과 같은 예를 통해서 보건대, ‘시간 벌기’ 전략이라든가, ‘망설임’ 혹은 ‘끝맺음’ 등의 의도를 담화 표지 ‘음’을 통해 여성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 ‘어’, ‘음’의 화용론적 기능을 더욱 면밀하게 정리, 분류 및 태깅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피는 후속 연구가 있어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음'의 특징적인 또 다른 차이는 발화 종결 위치에서 여성의 '음'이 남성에 비해서 길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발화 종결 위치에서 남성의 '음'은 평균 238 ms인데 비해, 여성은 평균 478 ms를 보여, 약 2배의 차이를 보였다.

(4) 여성의 발화 종결 위치에서 나타나는 ‘음’의 예
 뭐 소나타 <SIL> 아니면 아반떼도 있고 <IVER> 그래요 음
 (953 ms) <I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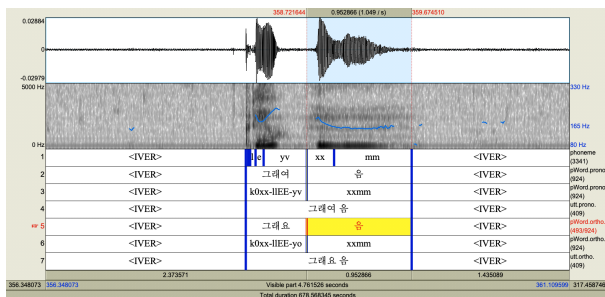


그림 9. <S28f34m5> 여성의 발화 종결 위치에서 나타나는 ‘음’
Figure 9. The pronunciation of ‘eum’ in a final position by female speaker

(4)는 발화 종결 위치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음’의 예이고, 그림 9는 구체적인 음성이다. (4)에서 ‘음’은 ‘그래요’라는 술어 바로 뒤에 953 ms 동안 이어지고 있다. 발화 종결 위치에서 ‘음’ 역시 다양한 화용론적 기능을 실현할 수 있으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설임’이나 ‘시간 벌기’의 의도로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여성 화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남성보다 ‘음’을 평균적으로 더 길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4.2. 10 대 ‘아’와 40 대 ‘어’의 특징적 사용

연령에 따른 담화 표지의 사용 양상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10대의 ‘아’와 40대의 ‘어’이다. 발화 시작 위치에서 10대의 ‘아’의 출현 빈도가 높고, 40대는 ‘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 10대는 ‘아’로 시작하는 발화가 많고, 40대는 ‘어’로 시작하는 발화가 많다는 것이다. (5)와 (6)은 각각 10대의 ‘아’와 40대의 ‘어’의 예이다. (5)는 그림 10에, (6)은 그림 11에 구체적인 음성적 예시를 제시하였다.

(5) 10대의 발화 시작 위치에서 나타나는 ‘아’의 예

아(28 ms) 그러니까 밥 말고 / 제가 이제 살 / 살 빠려고 헬스
도 시 얼마 전에 시작하고 했는데 /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단 / 당겨 가지 / 그래서 / 그런 거 사 먹을 때마
다 / 사 먹으면 / 그때야 좋죠 근데 / 아(95 ms) 먹고 나면 웬
지 기분이 짹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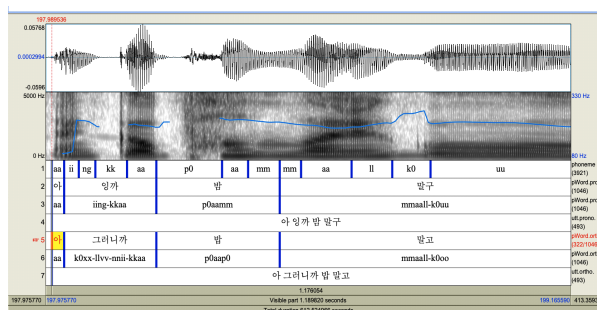


그림 10. <10f17f5> 10대의 발화 시작 위치에서 나타나는 ‘아’
Figure 10. The pronunciation ‘a’ in a initial position by the teens

(6) 40대의 발화 시작 위치에서 나타나는 ‘어’의 예

본인이 먼저 우리한테 부탁들 했어요. 수학 학원만 좀 보내 달라고 <VOCNOISE> 그래서 <VOCNOISE> 어(871 ms) 저 희가 인제 대치동을<SIL> 살살이 누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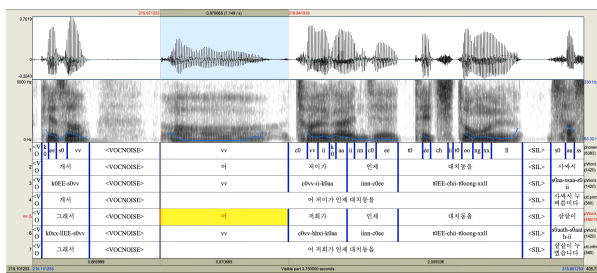


그림 11. <s33m44m3> 40대의 발화 시작 위치에서 나타나는 ‘어’
Figure 11. The pronunciation of ‘eo’ at the sole location of utterance
by the forties

그림 10은 10대 발화 시작 위치에서의 ‘아’로, 28 ms로 매우 짧게 발화된다. 이는 후행하는 ‘그러니까’와 한 번에 발화되어 ‘아잉까’처럼 들릴 정도이다. 그리고 그림 10의 스펙트로그램에

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어지는 발화 역시 ‘아(95 ms)’로 발화를 시작하여 마치 말버릇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40대의 시작 발화에서의 ‘어(871 ms)’를 길게 사용하고 있는 예시이다. 이는 10대가 발화 시작 위치에서 ‘아’를 매우 짧게, 자주 발화한 것과 대조하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0대의 ‘아’와 40대의 ‘어’의 사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담화 기능을 분류하지 않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 가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아’와 ‘어’가 Gries(2013)에서 울타리어(Hedge)로 분석한 영어의 ‘uh’와 ‘um’, Watanabe & Ishi(2000) 등에서 삽입어(Filler)로 해석한 일본어의 ‘e’나 ‘ma’ 등과도 유사한 점을 살필 수 있다. 이후 담화 표지의 언어 간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려는 연구도 전망해 볼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담화 표지 ‘아, 어, 음’의 출현 빈도와 발화 시간, 발화 위치 등을 계량적으로 관찰하여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대용량 음성 코퍼스인 서울코퍼스를 이용하였고, Praat(ver.6.1.31)으로 음길이와 실제 발화를 확인하고, Emeditor(ver.17.6.1)로 코퍼스를 분석하고, R(ver.3.4.4)로 통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단독 발화에서 ‘음’이 고빈도로 사용되었고, 발화 종결 위치에서의 평균 음길이 또한 길었다. 연령에 따라 보면 발화 시작 위치에서 10대에서는 ‘아’가, 40대는 ‘어’가 고빈도로 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제까지 화자 변인을 중심으로 담화 표지 ‘아, 어, 음’을 살펴봐왔다. 언어 외적 요소들이 담화표지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살펴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의 양상이 담화 표지의 어떠한 화용론적 기능에 의한 것인지까지는 그 해석을 넓히지 못하였다.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담화 맥락을 고려한 정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담화 기능을 좀 더 분명히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언어에서 울타리어 또는 삽입어로 분류되었던 단어들과의 범언어적인 고찰을 통해 명제적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고빈도로 발화되는 담화 표지들의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n, J. (2012), On the functional meaning of the discourse marker derived from exclamations.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61, 91-116.
- Gries, S. T. (2013). *Statistics for linguistics with 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NY: DeGruyter Mouton.
- Kang, W. (2002) A comparative study of discourse marker ‘Ah’ and

‘Uh’, *Urmal*, 12, 241-257.

- Kim, Y. C. (2005). A study on 'Ah' discourse mark in Korean language.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0, 161-174.
- Kim, Y. C. (2006). A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 of 'Eo!' to discourse mark in Korean language.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41, 249-266.
- Shin, J. Y. (2001), The Semantic Structure of Korean Interjections. *Korean Semantics*, 8, 241-259.
- Yun, W., Yoon, K., Park, S., Lee, J., Cho, S., Kang, D., Byun, K., ... Kim, J. (2015).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7(2), 103-109.
- Watanabe, M. & Ishi, C. T. (2000, October). The distribution of fillers in lectures in the Japanese language. In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oken Language Processing* (vol. 3, pp. 167-170). Beijing, China.

• 송영숙 (Youngsook Song)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306호 대학원생 연구실
Tel: 010-5254-3556
E-mail: youngsoksong@khu.ac.kr
관심분야: 전산 언어학, 언어 유형론

• 심지수 (Jisu Shim)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306호 대학원생 연구실
Tel: 010-3181-3678
E-mail: jisushim@gmail.com
관심분야: 코퍼스 언어학, 형태론

• 오재혁 (Jeahyuk Oh)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인문학관 교수연구동 204호
Tel: 02-450-3332
E-mail: with5jea@konkuk.ac.kr
관심분야: 음성학, 음운론

담화표지 ‘아’, ‘어’, ‘음’의 성별과 연령별 사용 양상

송영숙¹ · 심지수¹ · 오재혁²

¹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²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담화 표지 ‘아, 어, 음’의 출현 빈도와 발화 시간, 발화 위치 등을 계량적으로 관찰하여 성별과 연령별 차이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용량 음성 코퍼스인 서울코퍼스를 이용하였고, Praat(ver.6.1.31)으로 음길이와 실제 발화를 확인하고, Emeditor(ver.17.6.1)로 코퍼스를 분석하고, R(ver.3.4.4)로 통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단독 발화에서 ‘음’이 고빈도로 사용되었고, 발화 종결 위치에서의 평균 음길이 또한 길었다. 연령에 따라 보면 발화 시작 위치에서 10대에서는 ‘아’가, 40대는 ‘어’가 고빈도로 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핵심어: 담화 표지, 성별 변인, 연령별 변인, 서울 코퍼스

참고문헌

- 강우원(2002). 담화 표지 ‘아’와 ‘어’의 특성 비교 연구. *우리말연구*, 12, 241-257.
- 김영철(2005). 우리말 담화표지 ‘아’ 고찰. *국어문학*, 40, 161-174.
- 김영철(2006). 국어 담화표지 ‘어’의 고찰. *국어문학*, 41, 249-266.
- 신지연(2001). 감탄사의 의미 구조. *한국어 의미학*, 8, 241-259.
- 안주호(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61, 91-116.